

전어 구워 한 입! 감자 찌워 한 입! 쪽파 한 젓가락! 보성전어축제

제17회 보성전어축제 & 제32회 회천면민의 날, 8월 22일~23일 통합 개최

올여름, 바닷바람 맞으며 구운 전어 한 점, 찐 감자 한 입, 쪽파 요리 한 젓가락 그리고 흥겨운 음악까지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여름의 맛과 추억을 모두 잡아보자.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자랑하는 대표 여름 축제 '제17회 보성전어축제'와 지역 화합의 장인 '제32회 회천면민의 날'이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통합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와 회천면민회가 주최·주관해 '감쪽같은 전어축제, 화합의 장!'을 주제로 열린다. 보성의 대표 수산물인 전어와 지역 특산물인 감자·쪽파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 향토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전어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갈슘 함량이 우유의 2배 이상이라 건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구수한 찐 감자와 향긋한 쪽파 요리까지 곁들이면, 보성의

면민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보성군립국악단의 국악 한마당도 펼쳐진다. 더불어, 북한 출신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의 특별 공연까지 수준 높은 무대를 즐길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는 찐 감자·옥수수, 해물 파전, 새우구이 등 먹거리 장터와 전어·감자·쪽파·옥수수·새우 등 신선한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나무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품 판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김용장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지역 특산물과 전어가 어우러진 풍성한 먹거리,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연분홍 물결로 물든 비밀의 정원

백수읍 보은강연꽃방죽, 여름 연꽃 만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영광군의 숨은 연꽃 명소인 백수 보은강연꽃방죽에 연꽃이 만개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넓게 드리운 수면 위에는 연분홍빛 연꽃이 빼곡히 피어나, 푸른 수변 경관을 어우러져 여름의 절정을 알린다. 바람에 살랑이는 연잎과 은은한 꽃내음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휴식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연꽃방죽에는 석재 교량, 산책로, 수생식물과 조경이 조성되어 있어 사

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매년 5월에는 흰색·빨강·노랑·연노랑의 수련이 만개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화려한 연꽃이 절정에 이르러 관광객과 주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꽃방죽은 여름에 가장 빛나는 명소"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해 시설물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일곱 번째로 '출산 친화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으로 ▲임신·출산·육아의 행복과 소중함 ▲다자녀·다문화·다세대 가정 및 공동육아 모습 ▲고흥에서 부부가 함께 육아하고 성장하는 이야기 ▲고흥군 관광명소(고흥 10경 등)를 배경으로 촬영한 단란한 사진 등 1년 이내 촬영한 사

고흥군, '제7회 출산 친화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지역사회 가족 친화 분위기 확산으로 저출산 극복 공감대 유도

진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고흥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061-830-6643)이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http://go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은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

이며,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 원), 우수상 3명(각 30만 원), 장려상 15명(각 10만 원)을 시상한다. 올해는 다양한 작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선작 수를 전년도 12개에서 19개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출산·육아의 가치를 되새기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



어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0/31일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영암을 영암기찬시네마 관람료를 1,000원으로 인하한다.

이번 영화 관람료 인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2025년 국민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국비 1,700만원을 지원받아 이뤄진 것. 국비 지원에 따라, 1인당 1편에 7,000원

영암기찬시네마에선 최신 영화 관람료가 1,000원

문체부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국비 1,700만원 확보

이던 기존 관람료 중 6,000원을 할인해 누구나 1,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 할인은 현장 예매만 적용되고, 마련된 예산에 따라 지원은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김진중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영암군민이 부담 없이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즐기길 바란다.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

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개의 상영관에 총 98석 규모를 갖춘 영암기찬시네마는, 최신 개봉작부터 독립·예술 영화까지 상영하며 영암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고흥사람기부금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문화나들이를 돕는 '엄니 극장가시게'의 장소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관내 현대치과(원장 윤현식)가 지난 8월 13일 화순 관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대상으로 무상 치과 진료(스케일링) 재능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언어장벽으로 제때 적절한 치과 치료가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치과는 진료와 스케일링을 무상으로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

화순 현대치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무상 치과 진료

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현대치과의 이번 재능기부는 화순군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첫 지역사회 나눔 실천 행사로서, 건강한 근무 여건 조성과 지역사회 화합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안전한 농촌활력과정은 "이번 치과 진

료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근로자들의 치과 치료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신 현대치과와 진료진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 총 330명(농가형 300 공공형 30)의 계절근로자를

범무부에서 배정받았으며, 상반기에 농가형 158명, 공공형 29명 총 187명의 근로자가 입국하여 현재 213명의 계절근로자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대한민국 문화도시 순천에 잔망루피가 떴다!

잔망루피의 여름휴가, 정원위케이션 정원뷰 캐빈에서 한 달 살기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정원으로 떠난 잔망루피의 여름휴가'를 테마로 한 「정원위케이션x잔망루피」 콜라보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콜라보는 '정원위케이션'을 '잔망루피'로 재해석해, 정원에서 머물며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동시에 '럭(Luck, 행운)'을 찾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의미도 담았다.

한 달간의 여름휴가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잔망루피 포토존과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주요 포토존 구역은 호수정원, 개울길광장, 메타세쿼이아길, 정원위케이션 일원이며, 정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는 잔망루피를 만나면 유쾌하고 색다른 재미를 느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우선 국가정원 동문에 들어서면 10M 크기의 대형 잔망루피가 방문객을 맞이하며, 개울길광장에서는 선베드에 누워 여름휴가를 즐기는 잔망루피를 볼 수 있다. 또한 잔망루피 예약한 캐빈(잔망로 1)은 핑크색 아이템들로 채워져 2030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위케이션센터 내부 팝업스토어에서는 순천시 대표 IP인 루미·퐁이와 잔망루피의 콜라보 한정판 굿즈 6종을 비롯해, 여름철 신규 콘셉트 제품인 '촌캉스 시리즈' 등 다양한 잔망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며, 호수정원·개울길광장·정원위케이션 등 주요 포토스팟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인증샷 참여자에게는 굿즈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잔망루피, 루미·퐁이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는 특별한 경험도 즐길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과 글로벌 캐릭터 콘텐츠를 결합한 이번 콜라보를 통해 순천시만의 고유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문화·관광·산업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문화도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협업은 순천시 고유 IP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잔망루피 제작사인 썬아이 코너스는 지난 4일 IP 기반의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